

■ 법률 칼럼

종교비자/종교이민 신청 시 실사

1. 종교비자/이민 청원 교회의 실사가 갖는 의미

1) 초기 사전 실사(Initial on-site inspection): R-1 종교비자의 경우

종교비자 신청 시에 종교기관이 처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초기 실사입니다. 이 초기를 실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만 그 이후에 신청되는 종교비자 신청을 급행(Premium)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적인 실사 통과란 단순히 실사를 나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사를 나온 이후에 관련 비자 신청이 승인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실사를 나왔고 그 이후에 종교비자가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그 경우는 성공적인 실사가 아니므로 이후 또 종교비자를 신청할 때 급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초기 실사를 잘 넘겨야 이후 케이스 접수가 급행으로 가능하므로 초기 사전 실사를 잘 넘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초기 실사는 현재 교회가 종교기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하고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2) 사후 실사(Post-Approval On-Site Inspection)

그리고 실사는 종교비자/이민이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후 실사의 경우 이미 종교비자 또는 종교이민이 승인된 목사님들이 청원서에 명시된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 사역 기간표, 목사님의 사역 포지션, 사역 내용, 사례비 등이 청원서에 제출된 것과 동일함을 점검합니다.

2. 실사에 대한 대응

1) 사전 실사의 경우

이 경우는 실사가 종교비자를 스



폰서를 받는 목사님의 사역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스폰서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 시간, 그리고 종교활동의 내용 등을 담임 목사님이나 기존의 교역자들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고 예배 그리고 다른 사역들이 제출된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후 실사의 경우

종교비자/종교이민 승인을 받은 목사님들께서 사역 포지션, 사역 내용 등을 잘 숙지하고 실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스폰서를 받은 목사님들의 사례 내역을 payroll tax 관련 서류와 함께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기존 사역자들도 스폰서를 받은 목사님의 사역명과 사역 내용 등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민관이 다른 사역자들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인간의 모든 기관은 노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으며 관절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의학의 발전과 함께 노령 인구가 늘면서 퇴행성 질병을 앓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나 무릎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더욱 쉽게 생길 수 있는 부위입니다.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을 반복적으로 오래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생기며, 비만이나 과도한 운동으로 관절에 과부하가 생길 경우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 사이의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연골이 점점 닳게 되면서 뼈와 뼈가 부딪혀 염증과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입니다. 관절염 초기에는 주로 경구 및 국소 약물, 관절 내 약물 주사 혹은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방법으로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과도한 체중은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체중 조절도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이고, 몸무게를 10% 정도 줄이면 통증을 약 50% 정도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관리를 통해 연골을 지켜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고강도의 운동은 무릎 관절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자제하여야 하지만 적당한 강도의 근력 운동은 관절 주위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 관절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에서는 실내 자전거나, 물에서 하는 아쿠아로빅 등이 관절에 부하를 최소화 하면서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약물 치료는 캡사이신 크림이나 볼타렌 젤 등의 경피(topical) 제품이 경구형(oral) 약품에 비해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선호되고 효과가 없을 경우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등의 경구형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



구형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특히 시니어의 경우에는 심장, 신장, 간, 소화기관 등 여러 장기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돌록세틴(Duloxetine) 등의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NRI) 계열의 약물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등의 보조제를 먹는 것이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환자분이 많으신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이런 보조제가 관절염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드시라고 권유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보조제의 경우 부작용이 대부분 미미하고 개인에 따라 효과를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선호하면 드시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보존적 치료로도 통증이 관리되지 않을 경우 수술적 요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관절경 수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환자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주치의나 정형외과 선생님과 상의하여 같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shutterstock

김성현 내과 보드전문
(714) 562-9139
6131 Orangethorpe Ave, #150A
Buena Park, CA 90620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06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698	\$2,288
Asset Limit	\$16,660	\$33,24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T.714.872.9377